



금속·공공·보건·화섬-노동·녹색정의당, '산별교섭 정책협약' 체결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 “총선 승리 위해 최선 노력 할 것”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가 녹색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함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는 4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녹색정의당·노동당 2개 진보정당과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요구 합동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목표 달성 성과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시대,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극복,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사회연대와 평등일터 실현을 위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별노조-진보정당 정책협약’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동추진하고, 22대 총선에서 2개 정당 지역구·비례후보 당선을 지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모여서 협약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불



평등 타파, 노동 양극화 해소, 노조의 사회 공공성 역할 강화, 민주적 산업정책논의 구조 확보 등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가 정말로 시급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총선에서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자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한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양산되고 사회제도 개선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녹색 정의당은 대통령을 넘지 못했던 법안, 국회를 넘지 못했던 법안 등을 재추진 하고,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백운 노동당 대표는 “민주당

정부부터 10여년 동안 노조를 대공장·대기업·정규직 이해와 요구만 반영하는 노동운동으로 폄하, 왜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산별노조의 초기업 단위 교섭 그리고 근본

적인 정신들을 다시 세워내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와 녹색정의당, 노동당의 정책협약은 △산별노조 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거부·회피할 수 없고 사용자단체 구성 또는 연합해 산별교섭 참가하도록 교섭 의무 부여 △동일산업·동일업종 공동 이익 증진 목적의 사업자(사용자)단체의 정부 지원 △산업별 단협 효력확장제도 확대 △노동위원회에 초기업 교섭단위 결정제도 신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공공부문 노동자 노정교섭 구조 마련 △노란봉투법 재입법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 4일제·노동시간 단축 동참 △22대 국회 개원 뒤 원내 연구단체 ‘불평등 양극화 해소,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초기업 산별노사관계 발전 연구포럼’ 구성 등에 합의했다.

노동조합에 무릎 꿇으라는 한화자본

노조 장악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 ... 대우조선 원·하청, 웰리브지회 등 공동전선 구축

금속노조가 한화자본의 노동조합 장악 음모 분쇄를 위해 강고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와 한화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는 4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한화자본의 노동조합 장악 분쇄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차별 탄압 중단 ▲노동조합 합의사항 즉각 이행 ▲폐쇄적 노사관계 청산 ▲노사상생을 위한 대등한 노사관계 이행을 촉구했다.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세상천지에서 한화그룹 같은 악랄한 자본은 처음 봤다” 라면서 “매일 아침 한화 본사 앞에서 노조 탄압을 일삼는 한화 자본 규탄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라고 운을 뗐다.

김병조 부위원장은 “김승연 한화 회장은 현장 노동자에게 주는 돈 한푼이 아까워 별벌 떨면서, 자본이 운영하는 야구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다.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한화그룹에서 올해만 두 명의 젊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라면서 분노했다.

김유철 지회장은 “한화자본이 대



우조선 인수 당시 원·하청 노동자에게 RSU 300% 지급을 합의했지만, 경영목표 달성이라는 선언 문구에 불과한 내용을 트집 잡아 파기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양도제한조건 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은 회사가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자에게 귀속하도록 제한을 둔 주식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 라며 “한화자본은 겉으로 조선하청지회를 인정한다면서, 실제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마저 인정하지 않고 방해한다” 라고 규탄했다.

박춘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대우조선 시절부터 현장의 복지를 책임진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의 무능함 때문에 고용불안에 놓여있다” 라고 호소했다.

박춘화 웰리브지회장은 “2023년 7월 계약 종료 이후 지금까지 한화오션은 의도적으로 웰리브와 계약을 지연하고 있다” 라며 “이는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한화자본의 악행이다” 라고 강조했다.

김태갑 한화그룹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은 “한화자본 특유의 수직적, 폭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방위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라면서 “한화자본의 탄압에 맞서 한화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는 강고한 공동투쟁 전선으로 맞서겠다” 라고 결의했다.

옛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인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지난 1월 24일 도크 안벽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 돼 병원에 옮겼으나 사망했다. 앞서 12일 20대 하청노동자가 선박방향타 제작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졌다.